

17경기 무패...광주 FC 누가 막을소냐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시티즌과의 2019K리그 2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14분 골을 넣은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2 17R 대전에 1-0 승...펠리페, 전반 결승골 6월 1실점·창단 첫 4연승...부산 따돌리고 1위 독주

광주FC가 뜨거웠던 6월을 창단 첫 4연승으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지난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 2019 K리그2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4분 터진 펠리페의 결승골을 지키며 1-0으로 이겼다. 이 승리로 광주는 개막 후 17경기에서 무패(11승 6무) 행진을 달리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또 창단 이후 첫 4연승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승리로 시작해 승리로 끝난 광주의 뜨거운 6월이었다. 광주는 지난 6월 2일 FC안양과의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요뜸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앞세

워 1-0 승리로 6월을 열었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보낸 뒤 6월 16일 홈팬들 앞에 다시 선 광주는 더 강해진 모습이었다. 광주는 부천FC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터진 이요뜸의 골을 시작으로 막강 화력을 펼쳤다. 펠리페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포효했고,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윌리안까지 골맛을 보면서 4-1의 대승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원정길에서도 광주는 연달아 승전보를 전했다. 6월 24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두현석의 슈팅이 발판이 된 상대 자책골과 펠리페의 추가골로 2-0으로 3연승에 성공했고, 앞서 6승 5무 9패로 열

세를 보여온 대전도 1-0으로 제압하면서 창단 후 첫 4연승까지 내달렸다. 특히 16라운드에서는 무섭게 추격해오던 부산 아이파크가 승점 1점을 보태는 데 그치면서 승점 3점을 수확한 광주는 1위 싸움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광주는 4경기에서 8골을 넣으면서 '6월 전승'에 성공했다. 반면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통해 내준 1점이 6월 기록된 유일한 실점이었다. 막강 화력의 중심에는 역시 펠리페가 있었다. 부천전에서 멀티골에 성공한 펠리페는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골 세라모니를 했다. 전반 14분 김정환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는 왼발로 골을 잡은 뒤 침착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대전의 골망을 흔들었다. 펠리페의 시즌 14호골이자 이 경기의 결승골이 기록된 순간이었다. 뜨거웠던 6월 뒤에는 철벽 수비도 있었다. 대전 원정에서도 점유율 싸움에서는 대전이 60%를 기록하며 광주(40%)에 앞섰다. 또 대전은 11개의 슈팅을 날리며 5개의 유효슈팅도 남겼다. 8개의 슈팅(유효슈팅 3개)을 기록한 광주보다 대전은 더 많은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골키퍼 윤평국을 중심으로 광주의 탄탄한 수비진이 좋은 수비로 대전의 발을 묶었다. 그동안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그라운드에서 지 못했던 '주장' 김태운도 올 시즌 첫 출장에 나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는 등 수비 옵션도 늘었다. 공·수의 완벽한 조화 속 자신감이라는 큰 무기까지 장착한 광주의 뜨거운 질주가 7월에도 계속 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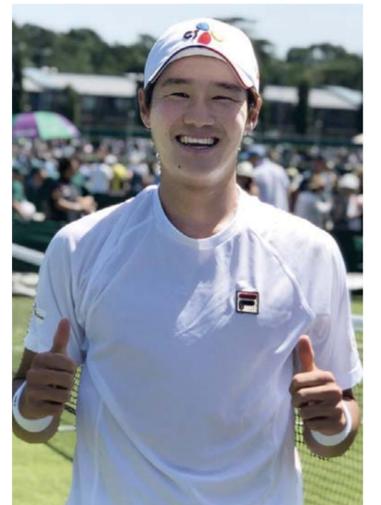
승리의 기 야구로 팍팍~

광주 FC 엄원상, 내일 KIA 챔피언스 필드 NC전 시구

광주FC의 '엄살라' 엄원상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선다. KIA타이거즈가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엄원상을 초청,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연다. 엄원상은 이날 국가대표팀 배번 1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KIA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하게 된다. 광주 금호고를 졸업한 엄원상은 아주대를 거쳐

미국 프로 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32)이 오는 5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30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를 앞두고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1일 콜로라도와의 일전엔 일본인 마에다 겐타가 등판한다. 하루 쉬고 3~4일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경기엔 로스 스트리플링, 워커 블러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른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5일 오전 10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전반기 마지막 4연전 첫 경기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29일 기대를 모았던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 원정 등판에서 4이닝 7실점이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로 69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다. 시즌 성적은 9승 2패이며, 평균자책점은 1.27에서 1.83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권순우도 있다



정현 이후 4년만에 Wimbledon 본선 세계 9위 하차노프와 1회전

한국 선수로 4년 만에 Wimbledon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파운드·약 557억3000만원) 본선에 오른 권순우(126위·CJ 후원)가 1회전에서 세계 랭킹 9위 카렌 하차노프(러시아)를 상대한다. 1일 영국 런던 Wimbledon의 올림피아드클럽에서 개막하는 2019 Wimbledon 테니스대회 본선 대진표가 지난 28일 발표됐다. 권순우는 1회전에서 하차노프를 만나고, 이기면 펠리시아노 로페스(53위·스페인)-마르코스 기론(158위·미국) 경기 승자와 2회전을 치른다. 2015년 정현(156위·한국체대) 이후 4년 만에 Wimbledon 본선에 진출한 한국 선수인 권순우는 1회전부터 세계 정상급 선수와 맞닥뜨리는 대진표를 받았다. 이번 대회 10번 시드 하차노프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네 차례 우승했으며 올해 프랑스오픈 8강에 올라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을 냈다. 키 198cm로 180cm인 권순우보다 18cm나 더 크고 지난해 Wimbledon에서는 16강까지 진출했다. 권순우가 1회전을 통과하면 2007년 이형택(43·은퇴) 이후 12년 만에 Wimbledon 단식 본선에 승리를 따내는 한국 선수가 된다. 전체 톱 시드를 받은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1회전에서 필리프 클슈라이버(57위·독일)를 상대한다. 2, 3번 시드의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계속 이겨 나가면 4강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

류현진 10승 '4전5기'

5일 샌디에이고전 선발 등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32)이 오는 5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30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를 앞두고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1일 콜로라도와의 일전엔 일본인 마에다 겐타가 등판한다. 하루 쉬고 3~4일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경기엔 로스 스트리플링, 워커 블러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른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5일 오전 10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전반기 마지막 4연전 첫 경기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29일 기대를 모았던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 원정 등판에서 4이닝 7실점이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로 69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다. 시즌 성적은 9승 2패이며, 평균자책점은 1.27에서 1.83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메시의 꿈' 이번엔 이뤄질까

아르헨티나, 코파아메리카 4강 진출... 3일 라이벌 브라질과 준결승

'영원한 라이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오는 3일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베네수엘라를 2-0으로 물리쳤다. 앞서 브라질은 지난 28일 대회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파라과이를 넘겼다. 브라질은 후반 8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해 수적 열세에 놓인 파라과이의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두 팀은 전·후반 90분 동안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브라질이 이겼다. 두 대회 연속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두고도 칠레에 번번이 좌절당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상대로 3연승 결승행을 노린다. 역대 전적은 109경기

45승 25무 39패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근소하게 앞서있다. 아르헨티나(1945-1947)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칠레는 승부차기 끝에 콜롬비아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칠레는 조별리그부터 무실점 경기를 이어온 콜롬비아의 단단한 수비에 고전하며 전·후반 90분 0-0으로 경기를 끝마쳤다. 승부는 승부차기에서 결정이 났다. 콜롬비아의 키커 윌리엄 테시오(산타페)가 실축한 반면, 칠레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알렉시스 산체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침착하게 골문 구석에 불을 쏘아 넣어 4강행 티켓을 따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방망이 침묵에 날아간 '황금사자기'

광주일고, 유신고와 준결승전 0-1 패...박시원 '타격상'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 2연패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광주일고는 지난 2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유신고와의 제7회 황금사자기 준결승전에서 0-1로 지면서 결승행이 불발됐다. '디펜딩 챔피언'을 꺾고 결승에 오른 유신고는 마산 용마고와의 결승에서 10-4로 승리하면서 황금사자기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결승 경기에서 나선 광주일고 야수들은 선발 정해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호수비 열전을 펼쳤지만, 역시 탄탄한 수비로 무장한 유신고를 뚫지 못하면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조형우가 3안타를 치는 등 광주일고가 7안타를 기록했지만 좋은 기회마다 유신고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마운드에 막혔다. 반면 유신고는 준결승전

에서 4안타에 그쳤지만 선투타자 강현우가 우중간 안타로 살아나간 5회말 이영재의 적시타로 만든 1점을 지키며 승리를 거뒀다. 한편 유신고 소용준은 마산 용마고와의 결승전에서 4회 구원 등판해 5.1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팀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상과 수훈상을 받았다. 유신고 허윤동이 우수투수상, 용마고 김태경은 감투상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고의 리드오프 박시원은 대회 타격상을 받았다. 박시원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나와 12타수 7안타(1홈런)로 0.538의 타율과 함께 5타점을 기록했다. 또 5개의 볼넷을 골라낸 박시원은 4차례 도루에도 성공하면서 광주일고의 공격을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